

《六度集經》의 寓言特色 小考

— 動物寓言을 중심으로 —

卞 貴 南*

<目 次>

I. 序 言	1. 주제와 특성
II. 《六度集經》의 형식과 사상적 배경	2. 의의와 영향
III. 動物寓言의 내용분석	IV. 結 論

I. 序 言

《六度集經》은 三國時代 吳나라의 康僧會 법사가 인도의 불경을 중국어로 옮긴 漢譯經典이며 佛의 前生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불경이다. 먼저 이 경전의 제목에 대해 살펴보면 ‘六度’의 ‘度’는 梵語의 ‘pāramitā’로서 ‘최상, 성취, 완성’을 나타내며, 漢譯으로는 ‘到彼岸’, ‘바라밀(波羅蜜)’ 또는 ‘바라밀다(波羅蜜多)’이다.¹⁾ 僧佑의 《出三藏記集》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는 이 책의 명칭을 ‘六度無極經’, ‘度無極集’ 또는 ‘雜無極經’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²⁾ 따라서 《육도집경》은 여섯 가지 바라밀, 즉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般若(明度)의 차례에 따라 보살행을 실천한 것에 관한 인연을 類聚한 것이다.³⁾ 《육도집경》에는 모두 91편의 이야기가 실

* 대구한의대학교 중어중국학부 조교수

1) 金勝東 編著, 《佛敎·印度思想辭典》,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546쪽.

2) 僧佑, 《出三藏記集》, 北京: 中華書局, 2003, 31쪽.

3) 金勝東 編著, 앞의 책, 1598·366·478·546쪽 참조. ‘度’는 ‘渡’와 통용되는

려 있는데 붓다의 일대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9편(No.56·74·75·76·77·78·79·80·86)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약 82편의 이야기가 붓다의 전생이야기이다. 붓다의 전생을 다루고 있는 일련의 경전들은 本生經이라고 부르는데, 《육도집경》 이외에도 《生經》·《雜寶藏經》·《出曜經》 등의 경전이 이러한 부류의 經典群에 해당된다. 본생경의 일반적인 내용은 심오한 교리나 철학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붓다와 관계된 여러 가지 전설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따라서 본생경에 실려 있는 붓다의 전생이야기는 문학장르로 보면 寓言이나 說話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본고는 《육도집경》의 본생이야기가 중국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찰할 것이므로 중국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寓言文學의 개념을 《육도집경》의 분석에 적용하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漢譯大藏經은 산스크리트어라는 인도의 고대언어로 표기된 印度佛經을 원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른바 산스크리트어 원전은 몇 종류의 단편적 사본을 제외하고 오늘날 대부분 산실된 상태이다. 스리랑카에 전승된 팔리어대장경과 티벳에서 전승된 티벳대장경 정도가 완질이 라고 하지만 한역대장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대장경과 한역 대장경을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육도집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강승회가 한문으로 옮길 때 사용한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의 경전을 완역한 것인지 또는 여러 개의 경전에서 選譯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전생이야기, 즉 本生譚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은 스리랑카에 전승되어온 《南傳大藏經》의 일부인 팔리어경전 《本生經(Jataka)》이라고 한다. 일본어로 번역된 《남전대장경》의 제28권에서 39권이 팔리어 《Jataka》의 완역본으로 여기에는 붓다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인연이야기(因緣物語)>를 제외하고도 총 547개에 달하는 붓다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苦海를 건넌다’는 뜻이다. ‘無極’이란 ‘波羅蜜’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바라밀’을 ‘彼岸’의 뜻으로 본다면 ‘圓滿無上한 최고의 경지, 즉 열반에 도달한다’로 풀이할 수 있다.

의 전생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자타카》를 《육도집경》의 원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타카》나 《육도집경》에 실려 있는 수많은 우언은 불교도의 순수 창작이라기보다 고대 인도의 민간우언을 불교도들이 붓다의 전생이야기와 결합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우언연구가 陳蒲淸은 《中國古代寓言史》의 제17절 ‘印度寓言的傳入及其影響’편에서 《六度集經》·《生經》 등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우언은 《五卷書》(AD 3~6세기) 등의 고대 인도의 민간 우언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⁴⁾ 고대 인도의 우언은 원래 이야기의 유래를 밝히지 않고 서로 베끼거나 마음대로 刪削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불경에 수록된 우언과 인도 민간 우언집에 실려 있는 우언의 시대적 선후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시대적 선후관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본생경에 실려 있는 우언이 인도 우언과 내용면에서 같다는 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생경에 실려 있는 우언의 연구는 고대 인도우언을 연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본고는 《육도집경》의 우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물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31편의 동물우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31편의 동물우언은 고대 인도의 민간우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우언에서 드물게 보이는 동물우언이 《육도집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4) 陳蒲淸은 자라와 원숭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동일한 이야기가 《佛本行集經》(제31권)·《六度集經》(제36편)·《生經》(제10편)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굽타왕조시대(AD 3~6세기)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인도의 우언집 《五卷書》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鏡面王의 이야기는 인도 민간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盲人摸象)’의 일화인데, 《열반경》·《육도집경》 등의 불경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 고대의 민간우언과 본생경의 연관관계는 상당히 밀접하다고 하겠다. 陳蒲淸, 《中國古代寓言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83, 186-195쪽.

II. 《六度集經》의 형식과 사상적 배경

흔히 불교경전을 해석할 때 경전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序分-正宗分-流通分の 세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科文이라고 한다. 《자타카》의 경우를 보면 이야기구조가 현재생-과거생-현재생의 삼단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육도집경》의 경우는 현재생을 설명하는 도입부분이 너무 짧고 소략하여 대개 과거생과 현재생의 二段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寓言과 教理解說의 二段으로 구성되어 있는 《百喻經》과도 다르다.⁵⁾ 《육도집경》의 전생이야기가 二段의 이야기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윤회전생한다는 불교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육도집경》의 36번째 고사인 원승이 이야기를 간추려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序分 : 보살이 전생에 어떤 이의 형으로 태어났다. 보살의 동생이 어떤 나라 왕에게 구슬을 바치고 헌신하자 왕은 자기 딸을 그 동생에게 내렸다. 한편 보살이 그의 동생과 함께 왕을 알현하자 왕은 형도 마음에 들어 동생에게 내린 딸을 다시 형에게도 내린다고 하였다. 형인 보살은 왕의 행위가 금수와 같다고 보고 동생을 데리고 물러갔다. 이에 원한을 품게 된 왕의 딸은 세세생생 윤회할 때마다 형의 간을 씹어 먹겠다는 저주를 한다.

主分 : 보살(형)은 윤회하여 원승이로 태어났으며 아우는 윤회하여 자라로, 왕의 딸은 자라의 아내로 태어나게 되었다. 자라의 아내가 병이 들어 원승이의 간을 먹고 싶다고 하자 자라는 원승이에게 음약을 들려준다고 속이고 그를 등에 태워 바다 한가운데로 간다.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된 원승이는 간이 나무 위에 걸려있다고 하면서 자라를 속여 생명을 구하게 된다.

5) 줄고, <《百喻經》의 寓言特色 小考>, 《中國語文學》 제44집, 2004. 350쪽.

結分 : 붓다는 이 이야기를 비구들에게 들려준 뒤, 형과 원숭이는 붓다 자신의 전생이며, 자라와 자라의 아내는 제바달다(提婆達多)와 그의 아내의 전생이라고 설명한다.⁶⁾

위의 《육도집경》 원숭이 이야기를 보면 序分에서 主分の 원인이 되는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육도집경》 우언고사는 과거생(서분·주분)—현재생(결분)의 이단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타카》등 많은 본생경전에서 취하고 있는 서분—주분—결분의 구분이 뚜렷한 삼단구조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육도집경》 36번째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자타카》 208번째 이야기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자타카》에서는 序分에 제바달다가 붓다를 해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붓다가 흥분한 제자들에게 과거생의 인연을 들려준다는 도입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사실 본생경의 이야기구조는 일반적으로 붓다가 현재의 어떤 사건을 듣고 난 후 제자들에게 그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과거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과거생에 어느 제자가 누구였고 붓다가 누구였다는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三段構造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육도집경》은 이단구조가 보편적이다. 《육도집경》의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강승희가 번역과정에서 일률적으로 序分을 삭제하였는지 아니면 본래 序分이 없는 원전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아무튼 본생경전의 도입부인 서분이 보통 생략되고 ‘예전에 보살이 어떠한 신분이었다’로 설명되는 짤막한 한 구절이 도입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육도집경》 우언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소개한 36번째 이야기의 경우 “예전에 보살이 수없는 겁 이전에 어떤 형제가 되어 장사를 하여 양친을 봉양하고 있었다.(昔者菩薩, 無數劫時, 兄弟資貨求利養親)”라는 한 구절이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主分の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도집경》의 이야기구조는 본생경의 일반적인 삼단구조에서 序分이 생략된

6) 康僧會 譯, 《六度集經》, 新脩大藏經 제3권, 19쪽.

이단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단구조의 전반부는 이야기의 중심부분(主分)이고, 후반부는 붓다와의 인연을 간략히 해설한 결말부분(結分)이다. 다른 본생경에 등장하는 우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도집경》에는 수많은 인도 민간우연이 중심이야기(主分)에 들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도의 우연을 붓다의 전생담과 연결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이유를 輪廻轉生이라는 고대 인도인의 사유방식과 석가모니 붓다에 대한 불교도의 무한한 숭배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의 전기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6년의 고행 끝에 佛道를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후대의 불교도들은 석가모니와 같은 聖人이 今生의 수행만으로 위대한 붓다가 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으므로 붓다가 과거생에서 수없이 많은 환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없는 善行과 修行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역사적으로는 한 사람의 붓다였던 석가모니의 인격이 과거에 출현했던 무수한 붓다와 미래에 출현할 무수한 붓다의 모델이 되었으며, 심지어 육체적으로는 소멸한 붓다가 영원히 존재하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구원불의 사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佛傳文學은 특히 大乘佛敎徒에 의해 많이 창작되었는데, 그들은 붓다의 인격을 이상화시키고 신성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인도의 민중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연고사를 붓다의 前生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선전효과가 큰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육도집경》 91편의 우연고사는 이른바 六波羅蜜(또는 六度無極)의 순서에 의해 배열되었다. 바라밀이란 보살이 수행하면서 닦아야 되는 최고의 실천덕목으로 오늘날에는 ‘波羅蜜’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강승회는 이를 ‘度無極’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度無極’이란 결국 중생을 끝도 없이 제도한다거나 보살이 닦아야 할 끝도 없는 수행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南傳大藏經》의 《자타카》를 보면 먼 옛날 석가모니 붓다가 수메다라는 이름의 수행자로 환생하여 수행을 통해 붓다가 되고자 하면서

그 방법으로 열 가지 바라밀을 닦겠다고 결심하는 대목이 있다.⁷⁾ 여기에 서 열 가지의 바라밀이란 布施波羅蜜·持戒波羅蜜·出離波羅蜜·智慧波羅蜜·精進波羅蜜·忍辱波羅蜜·眞實波羅蜜·決定波羅蜜·慈悲波羅蜜·捨波羅蜜 등의 열 가지 바라밀을 가리킨다. 이처럼 바라밀은 보살수행의 최고 덕목이며 모든 보살은 윤회전생을 거듭하면서도 늘 바라밀을 닦는다고 한다. 《육도집경》에서는 모두 여섯 가지의 바라밀, 곧 ‘六度無極’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布施度無極·持戒度無極·忍辱度無極·精進度無極·禪定度無極·明度無極’의 여섯 가지 바라밀이다. 《육도집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전생이야기는 바로 붓다가 이 여섯 가지 덕목(바라밀)을 끊임없이 닦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승회는 왜 육바라밀의 순서에 따라 우언을 배열하였을까?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강승회의 생애 및 중국불교 초기의 전래과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康僧會는 康居國 사람으로 先祖때는 서역에 거주하였다고 하지만 그의 부친에 이르러 吳나라와의 무역을 위해 交趾로 이사하였다고 한다.⁸⁾ 강승회의 부친이 교지로 간 것이 단지 무역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高僧傳》의 기록에 근거하면 강승회가 출가하여 승려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양친의 사망이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승회 자신의 회고를 담고 있는 <安般守意經>에 의하면 강승회는 이미 출가하기 이전에 상당한 수준의 불교 수행을 한 듯하다.

7) 사쿠라메 하지메(日譯)·이미령(韓譯),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서울: 민족사, 2003, 50-63쪽. 이 책은 일본인들이 번역한 남전대장경의 《자타카》를 번역한 것인데, 그 중 붓다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 <인연이야기(因緣物語)>는 원전의 완역본이고 <본생이야기(Jataka)>는 원전 가운데 14편을 선별하여 번역한 초역본이다. <인연이야기>의 50-63쪽에 10가지 바라밀에 대해 상세히 적고 있다.

8) 康僧會의 전기는 僧佑의 《出三藏記集》과 慧皎의 《高僧傳》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나는 말세에 태어나 처음에는 땀나무를 짊어졌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세 명의 스승도 돌아가시게 되자 구름과 해를 바라보며 이 몸 받아줄 곳 없음을 슬퍼하였다. 그 일을 회고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고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숙세의 복이 없지 않았는지 南陽의 韓林·穎川의 皮業·會稽의 陳慧 등의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 (중략) 陳慧 스승이 (<安般守意經>의) 주석을 달았는데 스승에게 전해받은 것이 아니면 감히 자유롭게 서술하지 못했다.⁹⁾

위의 글에 의하면 강승회는 유년시절부터 세 명의 스승에게 불교교리를 배웠으며, 양친의 별세 후 바로 출가하여 승려가 된 것은 이러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림·피업·진혜 등이 安世高의 《安般守意經》을 주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승회는 아마 소승불교를 전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육도집경》에서 나타나는 대승불교의 전통과 사상은 강승회가 살았던 시대의 중국불교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後漢 말엽, 중국불교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또한 대단히 미흡하였다. 그런데 黃巾農民軍의 반란(AD 184년)을 계기로 유교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붕괴되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孫權·曹操·劉備 등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한 군벌들은 禮敎思想과는 또다른 사상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중국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은 중국불교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좋은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으나 중국불교가 여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당시 통치자들의 옹호와 지지였으며, 다른 하나는 불교가 오랑캐 종교라는 중국인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했는데 아마도 강승회는 이러한 두 가지 선행조건을 일찍부터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高僧傳》에는 강승회 법사가 異蹟을 보여 불교를 믿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¹⁰⁾

9) 余生末蹤，始能負薪，考妣徂落，三師凋喪，仰瞻雲日，悲無質受，睽言顧之，潛然出涕。宿祚未沒，會見南陽韓林·穎川皮業·會稽陳慧，(中略) 陳慧注義，余助斟酌，非師不傳，不敢自由也。(僧佑, 앞의 책, 244쪽.)

10) 관련된 두 가지 異蹟은 劉宋시대의 劉義慶이 편찬한 《宣驗記》에 실려있는 지괴소설이다. 즉, 강승회가 기도를 통해 舍利를 나타나게 하여 吳王 孫權을

기록의 내용을 비판없이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지만 강승회에 대한 기록 자체를 부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강승회가 자리에 앉자 손호가 물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보응이란 어떤 것인가?” 강승회가 대답하기를 “무릇 현명한 군주가 있어 효도와 인자함으로 세상을 가르치면 붉은 까마귀가 날고 老人星이 출현하며, 仁과 德으로 만물을 기르면 甘泉이 샘솟고 아름다운 벼이삭이 나오는 법입니다. (중략) 《周易》에서 말하기를 ‘선을 쌓으면 경사스러운 일이 많다’고 하였으며 《詩經》에서는 ‘복을 지으면 그 회보가 따르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비록 유가경전의 격언이지만 이것이 곧 불교의 밝은 가르침입니다.”라고 하였다.¹¹⁾

강승회가 孫皓를 교화한 내용은 正史 《三國志》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 이므로 위의 인용문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강승회가 우리나라의 귀족계층을 교화할 때 《詩經》이나 《周易》 등의 유가경전을 인용하여 설법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시 말해 강승회가 경전번역, 불교전파 등의 종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오나라 귀족계층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아마 그가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융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布施波羅蜜에 대한 강승회의 설명을 살펴보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교화했다는 것(魯迅 編, 《古小說鈎沈·宣驗記》 魯迅全集 제8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3, 555쪽)과 吳王 孫皓가 불상을 모독하였다가 음부에 浮腫이 생겼는데 강승회가 그를 교화하여 참회하게 하고 부종이 치료되었다는 일화(같은 책, 554-555쪽)가 실려있는 것이다. 《宣驗記》를 편찬한 劉義慶은 왕자이면서 불교를 신봉했던 인물이고, 《高僧傳》의 저자 慧皎는 저명한 高僧이었으므로 이 두 가지의 異蹟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일화들이 아무런 진실도 담고 있지 않은 종교적 영험담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 11) 會既坐, 皓問曰: “佛教所明, 善惡報應, 何者是耶?” 會對曰: “夫明主以孝慈訓世, 則赤烏翔而老人見, 仁德育物, 則醴泉湧而嘉苗出 (中略) 《易》稱: ‘積善餘慶,’ 《詩》詠: ‘求福不回.’ 雖儒典之格言, 卽佛教之明訓.” (慧皎, 《高僧傳》, 北京: 中華書局, 1997, 17쪽)

것을 주며, 아픈 자에게는 약을 주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이 王者의 정치라고 주장한 孟子의 仁政思想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양자의 예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까닭에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생산활동을 제정함에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아래로는 아내와 자식을 돌보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풍년에는 늘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략) 五畝의 땅을 가진 집마다 뽕나무를 심게 한다면 선 살 이상의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닭, 돼지, 개, 새끼돼지 등등의 가축을 사육해야 할 시기를 잃지 않는다면 일흔 살 이상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百畝의 땅을 주고 그 경작해야 할 시기를 잃지 않는다면 여덟 식구가 있는 집이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을 부지런히 시행해서 孝悌의 도리를 거듭 가르친다면 반백이 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늙은이는 비단옷에 고기를 먹고,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도 왕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¹²⁾

보시바라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비로써 사람과 사물을 기르며, 모든 사악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며, 지혜로운 이가 바라밀을 이루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널리 중생들을 보호하고 제도하는 것이다. (그 은혜) 하늘과 땅을 뛰어넘고, 널리 강과 바다까지 미치니 널리 중생들에게 베푼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며, 추위에 떠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더위에 지친 자는 시원하게 해준다. 몸이 아픈 자에게는 약을 주어 구제하고, 수레·말·배·가마 등의 탈 것과 온갖 보배 및 진귀한 물건, 처자와 국토에 이르기까지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12) 是故明君制民之產，必使仰足以事父母，俯足以畜妻子，樂歲終身飽，凶年免於死亡。(中略) 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八口之家，可以無飢矣。謹庠序之教，申之以孝悌之義，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老者衣帛食肉，黎民不飢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謝冰瑩等編譯，《四書讀本·孟子》，臺北：三民書局，1987，318쪽)

중생들에게 내준다.¹³⁾

강승희가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의 융회관통을 위해 노력한 또 하나의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육도집경》에서 상당한 편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전생이야기이다. 본고는 《육도집경》중에서 동물이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32편의 우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15편의 이야기에 제바달다가 등장하고 있다.¹⁴⁾ 주지하다시피 제바달다는 석가족의 한 사람이며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지만 붓다의 권위를 탐내어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으며 阿闍世王과 결탁하여 붓다의 생명을 여러 차례 노리다가 산 채로 지옥에 빠졌다는 大惡人이다. 경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제바달다의 행위가 역사적 사실이었는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불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바달다는 五逆罪를 범한 악인인 것이다. 제바달다의 이야기는 《增一阿含經》·《佛所行讚經》·《佛本行經》 등의 경전에 나타나며, 《法華經》에 이르러서는 제바달다와 같은 大惡人也 성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提婆達多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강승희는 《육도집경》을 나름대로 편찬하면서 惡行을 저지른 제바달다조차 成佛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바달다는 과거생에서 붓다를 해치려고 했다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이 때문에 제바달다를 惡行惡果의 대표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충성스러운 신하나 효성스러운 아들은 반드시 하늘의 보답을 받기 마련이며 五倫의 질서를 깨뜨리는 인물은 하늘의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유교의 天命思想과 상통하

13) 布施度無極者, 厥則云何. 慈育人物, 悲愍郡邪, 喜賢成度, 護濟衆生. 跨天踰地, 潤弘河海, 布施衆生. 飢者食之, 渴者飲之, 寒衣熱涼, 疾濟以藥, 車馬舟輿, 衆寶名珍, 妻子國土, 索即惠之. (康僧會, 앞의 책, 1쪽)

14) 본고의 연구대상은 《육도집경》 중에 원숭이·사슴·코끼리·뱀·용·거북·말·비둘기·앵무새 등 동물이 이야기의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32편의 이야기(2·3·4·18·19·20·21·25·28·29·30·36·37·42·46·47·48·49·50·51·56·57·58·59·60·61·62·63·64·70·79·89번째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15편(20·25·28·29·36·46·47·48·49·50·51·56·58·61·70번째 이야기)의 이야기에 제바달다가 등장하고 있다.

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즉 교단의 파괴를 기도한 제바달다의 행위는 황제에게 不忠을 저지른 신하의 행위나 마찬가지이며 이 때문에 징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강승회는 육바라밀의 수행덕목을 중국의 유교 전통과 병렬시키거나 유교의 도덕윤리와 어긋나지 않도록 조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측면은 교단의 반역자인 제바달다를 대악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전생이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Ⅲ. 動物寓言의 내용분석

1. 주제와 특성

선진시대의 중국고대우언을 살펴보면 동물우언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며 설령 동물이 우언의 등장인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유와 寓意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孟子》의 사례를 살펴보면 <梁惠王>편에서 맹자가 梁惠王과 대화를 나누면서 祭享의 희생물로 소를 양으로 바꾸도록 한 행위를 지적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이 남들에게 인색한 행위로 보여질까 당황해하는 양혜왕에게 맹자는 군자는 푸주간에서 희생되는 소를 차마 보지 못하는 법이라고 해석하여 양혜왕의 난처한 심리를 해소하면서 善政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운다.¹⁵⁾ 또한 <萬章>편을 보면 舜임금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던 동생 象이 마음을 바꾸려 하자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워했다는 고사를 두고 누군가가 ‘이는 순임금이 거짓으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자, 맹자는 鄭나라 子産의 예를 들면서 ‘小人은 군자를 속일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정나라 사람이 子産에게 물고기를 선물하였는데 연못 관리인은 물고기를 삶아 먹고 난 후 자산이 물고기의 행방을 묻자 물고기가 연못에서 사라졌다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자산이 모든 것을 짐작하면서

15) 謝冰瑩 等 編譯, 앞의 책. 314-316쪽.

도 “갈 곳을 얻었구나, 갈 곳을 얻었구나!(得其所哉, 得其所哉.)”라고 하니 연못의 관리인은 현명한 재상으로 소문난 자산이 한없이 명칭하다고 생각했다는 일화이다.¹⁶⁾ 이처럼 《맹자》에는 동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동물이 이야기의 주체가 아니라 아예 객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동물우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이 유가 산문에서는 동물이 창작의 주요소재로 등장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하거나 의인법·과장법을 동원하여 寓意를 기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이것은 怪力亂神을 멀리하는 유가의 현실주의적 인생관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道家散文의 경우는 어떠한가? 도가산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莊子》를 보면 동물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몇 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동물우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의 비유(<秋水>)·紀渻子가 싸움닭을 훈련시킨 이야기(<達生>)·매미와 비둘기가 鯤과 鵬을 비웃는 이야기(<逍遙遊>)등을 동물이 나타나는 우언의 예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역시 동물우언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장자우언에서 동물이 등장하고 있는 우언의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발이 하나 밖에 없는 夔는 발이 많은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눈을 부러워하고, 눈은 마음을 부러워한다. (중략) 노래기가 뱀에게 묻기를 “제가 여러 개의 발로 다니지만 당신이 발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무슨 까닭인가요?”라고 하자 뱀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자연이 움직이는 바이니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발이 필요하겠습니까?” 뱀이 바람에게 말하기를 “저는 척추와 허리로 움직이고 있으니 (발과) 비슷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는 뽕뽕 소리와 함께 北海에서 일어나 뽕뽕 소리와 더불어 남해로 들어가는데 (발과)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바람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뽕뽕 소리를 내며 북해에서 일어나 남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16) 같은 책, 523-524쪽.

손가락질로도 나를 이기며, 발로 차기만 해도 역시 나를 이길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큰 나무를 꺾고 큰 짐을 날려 보내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큰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큰 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¹⁷⁾

위의 우언을 보면 夔라는 외발짐승과 뱀·노래기·바람 등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작자는 이들 무생물과 생물이 마치 사람처럼 서로 대화를 주고받도록 한다. 뱀이나 노래기·바람 등이 哲理的인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점에 대해 독자는 조금 낯설어 하면서도 오히려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 즉 자연이 모든 사물에 준 본성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생물은 하나의 동물이라기보다 작자의 철학적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자연스럽고 개성이 뚜렷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우언을 동물우언이라 부르기에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 이처럼 중국 고대우언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우언을 살펴보면 저자들이 주로 寓意와 思想전달에 많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우언 그 자체는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하기 어려웠다. 반면 《육도집경》의 동물우언을 살펴보면 동물이 등장하는 우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육도집경》에서 동물우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그 원인을 輪廻轉生의 세계관과 불교 특유의 菩薩思想에서 찾아볼 수 있다.

菩薩이란 ‘깨달음을 얻을 것으로 믿어지는, 즉 부처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有情’이라는 뜻이나 초기 불교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과 대승불교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¹⁸⁾ 그

17) 夔憐虵, 虵憐蛇, 蛇憐風, 風憐目, 目憐心. (中略) 虵謂蛇曰: “吾以衆足行, 而不及子之無足, 何也?” 蛇曰: “夫天機之所動, 何可易耶? 吾安用足哉!” 蛇謂風曰: “予動吾脊脊而行, 則有似也. 今子蓬蓬然起於北海, 蓬蓬然入於南海, 而似無有, 何也?” 風曰: “然. 予蓬蓬然起於北海而入於南海也, 然而指我則勝我, 鱣我亦勝我. 雖然, 夫折大木, 蜚大屋者, 唯我能也, 故以衆小不勝爲大勝也. 爲大勝者, 唯聖人能之.” (陳鼓應 譯注, 《莊子今注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 472쪽.)

18) 보살개념의 변천에 대해서는 李鍾燮의 석사학위논문 <《法華經》의 觀世音菩

차이점을 요약하면 자신의 成佛만을 목표로 하는가(自利) 아니면 衆生救濟를 우선으로 하는가(利他)의 차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석가모니불의 경우에 성불하자마자 곧바로 傳道와 教化를 실천했으므로 自利(成佛)와 利他(救濟)를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발생이나 대승보살 개념의 형성과정 같은 종교사의 여러 가지 명제는 본고의 연구목적이 아니므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지 않겠지만 보살개념의 형성과 발전은 《자타카》에 전해지는 석가모니의 전생이야기나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적지 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초기불교에서 ‘보살’이란 용어는 석가모니에 한정되어 사용하였는데, 붓다가 되기 이전의 석가모니를 가리켜 ‘보살’이라 하기도 하였고, 과거의 수많은 전생에서 갖가지 생물로 환생하여 바라밀을 닦는 석가모니의 前身에 대해서 ‘보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석가모니의 성불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성불이전의 석가모니도 성불이 예정될 수밖에 없는 존재, 곧 보살이라는 것이다. 이는 분명 중생의 救濟와 利他行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보살사상과 조금 다른 개념의 ‘보살’이며 後代 보살사상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보살’개념이라고 하겠다. 초기의 보살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불을 하기 위한 맹렬한 자기수행이며, 그 수행의 원리는 六波羅蜜로 알려져 있다. 석가모니는 아득한 과거생에 수메다라는 이름의 수행자로 태어나 디팜카라 세존(錠光佛)에게 공양을 하였고 진흙길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지나가게 했다고 한다. 이에 錠光佛은 수메다 行者가 석가족의 수행자가 되어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수메다는 성불하기 위해 어떠한 수행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十波羅蜜의 수행이야말로 成佛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¹⁹⁾ 成佛하기 위한 보살의 수행에 대해 경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대승경전에서는 십바라밀 대신 육바라밀을 보살수행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바라밀의 성취는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의 노력이 드는 일로서 윤회전생을 인정하고 있는

薩研究>(동국대학교, 2002) 11-28쪽 참조.

19) 사쿠라메 하지메(日譯)·이미령(韓譯), 앞의 책, 34-63쪽.

불교도의 입장에서는 보살행의 완성을 위해 보살이 수천, 수만번의 윤회를 통해 바라밀을 닦는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고대인도의 민간우언을 석가모니의 전생이야기와 결합하여 이야기의 숫자를 증가시키게 되면 석가모니의 보살수행이 얼마나 극진했든가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가 증대된다. 전생의 보살수행을 더욱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동물로 태어나 핍박받는 경우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자타카》의 작가들은 민간우언 중에서 동물우언을 붓다의 전생담에 많이 넣었다. 이처럼 보살사상과 윤회전생의 관념은 고대 인도의 민간우언과 불교문화가 결합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고대 인도의 민간우언에는 어떤 동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동물은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용과 코끼리를 들 수 있는데 용의 경우 고대 인도인들은 코브라를 특히 숭배하여 이를 부족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龍神思想이 있었다고 한다.²⁰⁾ 《육도집경》의 79번째 이야기를 보면 붓다가 도를 깨닫고 범열에 잠겨 있을 때 용왕이 그를 보호했다는 구절이 있다.

(용은) 붓다의 앞으로 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더니 붓다의 주위를 일곱 번 돈 후 붓다로부터 40리 떨어져 일곱 개의 머리로 붓다의 위쪽을 가린 후 환희에 차서 칠일 밤낮으로 비바람을 뿌렸다. 붓다는 정좌해 아무런 동요도 없이 숨도 쉬지 않았으며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붓다가 되었다. 기쁜 마음에 몸을 살피려는 생각이 없었다. 용도 크게 기뻐서 그 역시 칠일

20) A.D. 600년경에 만들어진 비쉬누神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아홉 마리의 코브라神의 浮彫나 나란다대학의 승원터에서 발견된 코브라가 비쉬누를 감싸고 있는 浮彫에서 코브라가 윤회를 상징하거나 河神을 상징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을 蛇神이라고 하며, 이러한 蛇神(Naga) 숭배의 습속이 불교신화로 유입되면서 天龍八部라는 독특한 수호신 전설을 만들게 된다.(하인리히 칩머 지음, 이숙중 역, 《인도의 신화와 예술》, 서울: 대원사, 1995, 85-89쪽 참조) 이미 《長阿含經·龍鳥品》에 여러 가지 용들이 불교의 수호신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太平廣記》의 龍說話들은 불교의 天龍신앙이 중국 고유의 河伯神 신앙과 결합하여 龍宮이나 龍神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裴世珍, <太平廣記의 龍說話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참조.

동안 먹지 않았으나 목마르거나 배고픈 생각이 없었고, 일주일이 다 되자 비바람을 그쳤다.²¹⁾

이것은 분명 인도 고유의 龍神崇拜思想이 불교와 융합했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용신은 물과 비바람 등을 통제하므로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를 용에 비유하거나 용과 연관시키기도 하였다. 《육도집경》 48번째 이야기를 보면 두 마리의 용(붓다와 아난의 前身)이 육지구경을 하고자 작은 두 마리의 뱀으로 변신하여 길을 갔는데 한 毒蛇(제바달다의 전신)가 앞길을 가로막으며 독을 내뿜으니 이에 두 마리의 용이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자 놀란 독사가 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²²⁾ 이 이야기의 주제는 忍辱波羅蜜에 관한 것이지만 이야기 전체를 통해 뱀과 용이 서로 가까운 연관관계가 있으며, 고대의 蛇神崇拜와 龍神崇拜는 상호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또한 《육도집경》 50번째 이야기를 보면, 拘深國王 抑迦達이 용왕의 요구로 자신의 딸을 용왕에게 시집보냈다. 용왕의 왕비는 槃達龍을 낳았는데, 반달용은 부귀영화를 싫어하여 용왕의 자리를 잊지 못하고 뱀으로 변신해 육지에 숨어 지낸다. 이 때 陂圖라는 마술사가 독약과 지팡이로 뱀으로 변신한 반달용을 잡아 사람들에게 뱀이 춤추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마술사가 억가달왕의 궁전으로 가서 뱀이 춤추게 하려 했더니 반달용은 어머니와 누이를 만날 것 같아 차마 춤을 추지 못하였다. 마술사가 기어이 춤을 추게 했더니 억가달왕과 반달용의 어머니가 춤추는 뱀이 반달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반달용왕은 붓다의 前身이며, 陂圖는 곧 제바달다의 前身이다.²³⁾ 이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단편소설처럼 드라마틱한데 龍의 일가족이 등장한

21) 龍前趣佛. 頭面著地. 遶佛七匝. 身去佛四十里. 以七頭覆佛上. 龍喜作風雨七日七夕. 佛端坐不動不搖不喘不息. 七日不食得佛. 心喜都無有(身)想. 龍大歡喜. 亦七日不食無飢渴念. 七日畢風雨止. (강승희, 앞의 책, 42쪽.)

22) 같은 책, 27쪽.

23) 같은 책, 28쪽.

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장정해 교수는 <唐人小說 속의 龍宮世界>라는 논문에서 중국고대의 水神은 河伯이었는데 불교전래를 계기로 하백과 水府世界가 龍王과 水神觀念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⁴⁾ 반달용왕과 龍族의 이야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고대 인도의 龍神·龍王崇拜觀念이 최초로 중국에 소개되었던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코끼리, 특히 흰코끼리(白象)는 붓다를 상징하는 동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붓다의 일대기와 연관이 있다. 즉 석가모니의 모친인 마야부인은 임신했을 때 흰코끼리를 태몽으로 꾸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코끼리는 상서로운 동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코끼리가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육도집경》 28번째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생에 붓다가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왕으로 태어나는데, 코끼리왕이 첫 번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 두 번째 아내가 원한을 품고 죽는다. 이윽고 코끼리왕의 두 번째 아내는 인간으로 환생하여 그 나라 국왕의 왕비가 되고 원한을 품었던 코끼리왕의 상아를 가지고 싶다고 국왕에게 요청한다. 이에 국왕이 사방의 사냥꾼을 모아 물어보니 어떤 사냥꾼(제바달다의 前身)이 코끼리왕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고 하므로 그를 보내 코끼리왕의 상아를 가져오도록 한다. 사냥꾼이 왕비가 말한 대로 수행자의 복장을 걸치고 코끼리왕에게 접근하였다. 코끼리왕은 忍辱의 수행을 닦고 있었으므로 사냥꾼이 그의 상아를 잘라 가도록 하고 자신은 죽어 天上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다.²⁵⁾ 용과 코끼리가 짐승들의 왕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에 비유될 수 있다. 이것은 붓다가 왜 왕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왕위를 버리고 사문이 되어 고행을 했는지, 용과 코끼리는 백수의 왕이면서도 왜 온갖 모욕을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육바라밀의 성취를

24) 張貞海, <唐人小說속의 龍宮世界>, 《中國語文學誌》 제12집, 中國語文學會, 2002. 168-169쪽 참조.

25) 강승희, 앞의 책, 17쪽.

위해 비록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늘 자신을 희생하고 남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남을 구제함으로써 누세에 걸친 善業이 쌓여 마침내 붓다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도집경》의 동물우언은 붓다의 위대한 인격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 붓다가 전생에서 어떠한 동물로 환생하던 간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생들을 돕는다는 이야기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붓다는 魚王·鹿王·孔雀王·鸚鵡王·雀王·猿王·馬王·龜王·鶻王 등의 다양한 동물로 환생하지만 늘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도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고대 인도에서 동물의 존재가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며 《자타카》에 수집된 고대 인도의 우언은 불교미술의 형태로 재현되어 인도의 민중들에게 또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²⁶⁾

2. 의의와 영향

《육도집경》의 우언, 특히 동물우언고사는 중국 고대우언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고전소설의 형성과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육도집경》의 우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先秦時代의 중국고대우언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고대 인도의 민간우언과 고대 중국의 민간우언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특징 때문이라고 하겠다. 대체로 중국 고대의 散文寓言은 유가나 도가를 막론하고 작자의 정치·사회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우언의 수법을 운용한 경

26) 인도 고대의 불탑조각 중에서 붓다의 悟道와 前生譚 등을 다루는 것이 있다. 그 가운데 전생에 猿王으로 태어난 붓다가 목숨을 걸고 종족을 구하는 이야기가 산치 탐문의 기둥에 조각되어 있는데, 대개 그 제작연대가 기원전으로 소급되는 이 본생이야기는 《육도집경》 56번째에도 소개되어 있다. 결국 동물이 등장하는 우언고사는 인도 민중에게 매우 친근한 소재였으며, 아 때문에 불교로 유입된 우언고사들이 다시 우언과 불교미술이라는 통속적 예술형식으로 발전하여 인도의 민중들에게 새로운 영향을 미쳤다. 비드야 테헤자 薙·이숙희 역, 《인도미술》 서울: 한길아트, 2001. 61-63쪽.

우가 많다. 따라서 대체로 동물우언보다 사람이 등장하는 人物寓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凝溪의 《中國寓言文學史》에 의하면 서구·인도의 고대 민간우언은 대부분이 동물우언이고 전체의 20%가량이 인물우언이며, 중국 고대 민간우언은 전체의 70%가량이 인물우언이라고 한다.²⁷⁾

동물우언이란 인간사회의 현상들을 설명하거나 풍자하기 위하여 동물을 의인화시키고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로 만든 것으로 문학적 형태로 보면 가공되지 않은 소박한 인류역사 초기에 나타난 문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인도의 민간우언에 동물우언이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학형태가 고대 인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단계의 소박한 문학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중국의 민간우언 역시 입으로 전해지던 민간 신화나 전설이 적지 않았겠지만 공자를 비롯한 유가사상가에 의해 고전시대의 문화가 정리되면서 괴이하고 신빙성 없는 민간의 기이한 설화들이 많이 삭제되었다. 유가경전에 보존되어 있는 민간의 신화나 전설은 주로 유가의 학설을 보충하기 위해 인용되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은 도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莊子》·《列子》·《淮南子》 등에 인용된 신화와 전설은 도가의 학설과 주장을 보충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선진시대의 제자산문에서 인물우언이 동물우언보다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자산문의 작자들이 정치적·사회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인물우언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 중국의 산문우언은 줄거리 자체의 흥미보다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 강력한 풍자와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즉 이야기와 작자의 논리적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반면 《육도집경》의 동물우언은 불교교리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說理性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식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일반대중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교리의 설명보다 우언 자체의 전달을

27) 凝溪, 《中國寓言文學史》,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92, 175쪽.

통해 說法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육도집경》의 동물우언은 선진시대의 說理散文에 나타나는 동물우언의 양식과는 다르다. 한편 《육도집경》의 동물우언 양식은 후대의 우언작자에 의해 계승되기 보다는 志怪小說의 작가들에 의해 그 내용과 형식이 흡수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환골탈태하여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東晉때 干寶가 지은 《搜神記》 제20권을 보면 주로 동물과 사람사이에 얽힌 일화를 다루고 있는 지괴소설이 많은데,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람이 위기에서 동물을 구해주자 그 동물들이 은혜를 보답하거나 반대로 해를 끼치자 보복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이다. 東晉은 강승희의 시대와 10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이 시대에는 불교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처럼 아주 생소한 외래종교는 아닌 시대였다. 간보가 당시의 佛經들을 얼마나 읽어보았는지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물을 구해주면 보답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에는 중국고유의 민간신앙만이 아니라 불교적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²⁸⁾

《육도집경》에는 원숭이왕으로 등장하는 붓다의 전생이야기가 적지 않지만, 그 가운데 46번째 원숭이왕의 이야기²⁹⁾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옛날 어떤 왕이 탐욕스런 외삼촌 때문에 나라를 그에게 양보하고 산 속에 은거하였다. 이 때 바다에 사는 탐욕스런 용이 승려로 변신하여 왕의 환심을 사더니 왕이 출타한 틈을 타서 왕비를 납치했다. 왕이 슬퍼하면서 왕비의 행방을 찾다가 역시 외삼촌에게 왕국을 빼앗긴 원숭이왕을 만난다. 왕이 원숭이왕의 처지를 동정하여 그의 나라를 되찾게 해주자 원

28) 《搜神記》 제20권에 실려 있는 용·호랑이·학·뱀·거북·물고기·개미·개·원숭이 등 동물의 恩怨이야기는 민간우언이나 설화에서 채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교의 因果應報說의 영향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많다. 또한 동물우언은 아니지만 제15권과 16권에 실려있는 귀신이야기나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들도 죽음 이후의 삶을 가정하고 있는 불교의 세계관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로 볼 수 있다. 干寶 著·黃滌明 譯注, 《搜神記全譯》, 貴陽·貴州人民出版社, 1994.

29) 강승희, 앞의 책, 26쪽.

숭이왕은 왕을 도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용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왕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육도집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매우 짧지만 사실 인도 고대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줄거리를 크게 축약한 것이다. 勇力과 지혜가 뛰어난 원숭이의 이야기는 인도의 고대 민간우언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고대 중국 민간우언에는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 이것은 결국 중국이라는 지역에서 원숭이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추정되는데 唐代 傳奇 《補江總白猿傳》에서 신비스러운 원숭이괴물(猿怪)이 한번 창조되자 잇달아 《陳巡檢梅嶺失妻記》나 《清平山堂話本》·《剪燈新話》에서 원숭이요괴가 창조되었다. 이처럼 부녀자를 납치하는 원숭이괴물의 모티프는 유명하며, 원숭이가 지괴소설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本生系 불교경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원숭이왕의 이야기가 하나의 간접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⁰⁾

이외에도 唐代 傳奇小說에는 동물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소설이 적지 않는데 용궁을 무대로 삼고 있는 《柳毅傳》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柳毅라는 서생이 涇川의 강가를 지나다가 양을 치며 수심에 잠겨있는 미인을 발견한다. 그녀는 洞庭湖 용왕의 딸로 경천 용왕의 둘째아들에게 시집왔으나 남편과 시부모의 학대를 받고 있음을 알고 이 소식을 동정호의 용왕에게 전해준다. 동정호의 용왕

30) 중국소설사에서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西遊記》에 나오는 孫悟空의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李公佐의 唐 傳奇 《古岳瀆經》에 나타나는 無支祁라는 것과 인도고대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에 나타나는 원숭이왕 哈奴曼이 중국에 전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나 확실히 결론내리기는 어렵다.(鄧紹基 等,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 손오공은 여러 가지 원형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猿王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확히 어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육도집경》 등의 본생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숭이왕의 형상이 《補江總白猿傳》 이후 자주 나타나는 원숭이괴물의 형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雜寶藏經》에 나타나는 《라마야나》의 흔적에 대해서는 줄고 <《雜寶藏經》의 本生故事 小考>(中國語文學 제47집, 245-247쪽 참고.)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자 그의 동생이며 錢塘江의 水神이었던 錢塘君이 경천 용왕 일가를 파괴하고 돌아온다. 동정호 용왕은 잔치를 베풀어 유의에게 감사하지만 전당군이 동정 용왕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하자 유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끝내 거절한다. 고향으로 돌아와 용왕이 준 보물을 팔아 부자가 되고 두 명의 여인과 결혼하지만 모두 일찍 죽고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용모가 동정호 용왕의 딸과 닮았다. 아이를 출산한 후 동정호 용왕의 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동정호로 자취를 감춘다.³¹⁾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대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를 다스리는 神은 河伯이었다. 그런데 唐 傳奇小說에서 涇川·洞庭湖·錢塘江과 같은 주요 水路를 다스리는 것은 河伯이 아니라 龍王이다. 또한 《유의전》에서는 인간의 일족과 흡사한 龍族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이는 《육도집경》 50번째에 소개되고 있는 槃達龍王의 고사를 연상시킨다. 한편 錢塘江의 龍神인 錢塘君이 涇川 龍族에게 분노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장면은 《육도집경》 70번째 고사³²⁾를 연상시킨다. 이 이야기에서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은 먼 옛날 전생에 어떤 나라의 형제로 태어난다. 그들은 보살의 수행을 위해 불도의 전파에 힘쓰지만 이웃나라의 蛟龍이 그 나라의 국왕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등 佛道의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을 계속 하자 두 형제가 코끼리와 사자로 변신하여 교룡과 결투를 벌여 결국 교룡을 죽인다. 이 때 두 형제도 희생되지만 그로 인해 그 나라에 佛道가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이상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 것처럼 《육도집경》 속의 동물우언은 魏 晉南北朝時代의 지괴와 唐代의 전기소설의 형성과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唐 傳奇 《補江總白猿傳》·《柳毅傳》·《任氏傳》 등에 나타나는 동물형상이 독창적인 인물형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새로운 동물형상이 중국불교의 전성기였던 唐代에 나타났다는 사실

31) 李朝威, 《柳毅傳》, 北京: 中華書局, 1985.

32) 강승희, 앞의 책, 37쪽.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위진남북조시대의 몇몇 지괴소설집, 예를 들어 《搜神記》·《幽明錄》·《宣驗記》·《冥詳記》는 불교의 세계관이나 종교신앙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唐代를 기점으로 하여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儒·佛·道 사상의 합류로 인해 불교의 세계관이나 신앙이 중국인의 고유 신앙처럼 융합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宋代 《太平廣記》를 보면 제 418권에서 479권까지 갖가지 동물과 곤충을 소재로 하는 단편소설이 수집되어 있는데, 위진남북조 이후 이처럼 동물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소설이 늘어나게 된 것은 분명 불교의 세계관이나 종교신앙과 관계가 있으며 몇몇 동물의 경우 불교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太平廣記》에서 가장 많은 편폭을 차지하고 있는 龍·水族 등의 항목과 더불어 원숭이·사슴·코끼리·곤충 등의 항목은 불교경전에서 전해지고 있는 동물형상이나 윤회전생관념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³³⁾

IV. 結 論

강승희가 번역하여 간행한 《육도집경》은 다른 漢譯佛經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에게 불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육도집경》에서 붓다의 전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80여 편의 우언고사는 당시 고대 인도 민간에서 流傳되던 민간의 우언고사를 거의 그대로 채록하였으므로 불교의 포교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 인도 고대문학이 중국에 전래되는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육도집경》이 전래된 시기는 三國時代

33) 《太平廣記》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형상들은 후대의 지괴소설가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清代 文言小說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蒲松齡의 《聊齋志異》를 보면 여우·호랑이·용·사슴·까마귀·쥐·청개구리·개·비둘기·뱀·원숭이 등 거의 모든 동물과 곤충이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상상력과 환상이 풍부한 불경의 동물우언과 윤회전생관념이 창작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뜻나라의 존속시기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므로 《육도집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연들은 아마 최초로 중국에 소개된 인도 고대의 민간우언집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육도집경》에 수록되어 있는 일부 동물우언은 중국 고대문학, 특히 우언과 지괴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형식적 측면에서 본다면 《육도집경》의 동물우언은 現生과 過去生이라는 二段구조로 되어있고, 동물우언고사는 그 중에서 과거생에 해당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六波羅蜜의 순서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의 고사들을 배열하였다. 대부분이 인도의 민간우언에서 유래한 동물우언고사가 붓다의 과거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작배경은 보살사상과 윤회전생관념이다. 위대한 붓다의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무한의 세월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불교도의 신앙이 수많은 붓다의 과거생에 근거를 부여하였으며 붓다가 과거생에 무수한 동물로 환생했었다는 이야기에도 하나의 근거를 제공한다. 《孟子》·《莊子》·《韓非子》 등 중국고대의 선진우언은 동물우언의 비중이 높지 않은데, 이는 이야기의 전달보다 이야기의 교훈성과 哲理性에 치중하는 선진우언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육도집경》에 수록되어 있는 동물우언고사는 중국고대우언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육도집경》의 동물우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형상 중에서 중국고대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것은 龍神의 관념과 신령스러운 원숭이 등의 동물형상이다. 唐代 傳奇小說 《柳毅傳》이나 《補江總白猿傳》 등의 창작에는 이처럼 인도에서 전래되어 중국의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된 인도 민간우언의 동물형상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東晉시대의 《搜神記》를 보면 동물이 등장하고 있는 지괴의 숫자가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宋代 《太平廣記》에 이르면 수십여 개가 넘는 동물지괴소설의 유형이 분류되어 있다. 이는 남북조시대 이래 儒·佛·道가 교류하기 시작하여 唐代에는 절정에 이르렀고, 宋代에 이르면 불교의 전통이 외래 사조라기보다 중국 고유의 민간전통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唐代에는 수많은 지괴소설을 채록한 《法苑珠林》과 같은 佛教類書가 편찬되기도 했는데,

《육도집경》에 나타나는 대량의 동물우언은 지괴작가들의 상상력과 창작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康僧會, 《六度集經》, 大正新脩大藏經(日本) 제3권
僧佑, 《出三藏記集》, 北京: 中華書局, 2003
慧皎, 《高僧傳》, 北京: 中華書局, 1997
《南傳大藏經》,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金勝東 編著, 《佛教·印度思想辭典》,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鄧紹基 等,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
李朝威, 《柳毅傳》, 北京: 中華書局, 1985
魯迅 編, 《古小說鈎沈·宣驗記》 魯迅全集 제8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3
謝冰瑩 等 編譯, 《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 1987
陳鼓應 譯注, 《莊子今注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
千寶 著·黃滌明 譯注, 《搜神記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4
陳蒲清, 《中國古代寓言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83
凝溪, 《中國寓言文學史》,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92
丁敏, 《佛教譬喻文學研究》, 臺北: 東初出版社, 1996
張貞海, <唐人소설속의 龍宮世界>, 《中國語文學誌》제12집, 中國語文學會, 2002
裴世珍, <太平廣記의 龍說話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李鍾燮, <《法華經》의 觀世音菩薩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卞貴南, <《百喻經》의 寓言特色 小考>, 《中國語文學》제44집, 嶺南中國語文學會, 2004
卞貴南, <《雜寶藏經》의 本生故事 小考>, 《中國語文學》제47집, 嶺南中

國語文學會, 2006

사쿠라베 하지메(日譯)·이미령(韓譯),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서울: 민족사, 2003

李昉 等 編·金長煥 外 譯, 《태평광기》, 서울: 학고방, 2000

천푸칭 著·오수형 譯, 《중국우언문학사》, 서울: 소나무, 1994

서영대 編, 《용, 그 신화와 문화》, 서울: 민속원, 2002

윤승준, 《우언의 재미와 교훈》, 서울: 월인, 2000

하인리히 침머 著·이숙중 譯, 《인도의 신화와 예술》, 서울: 대원사, 1995

비드야 테헤자 著·이숙희 譯, 《인도미술》, 서울: 한길아트, 2001

<中文提要>

《六度集經》是三國時代吳國康僧會法師翻譯的一部漢譯佛典，其主要內容是各種各樣的佛本生故事。每個故事有兩個情節結構，前一段是佛或者佛弟子首先說明今生的故事，後一段是佛或者佛弟子說明今生有關前生的故事，例如在過去某一個生，佛陀出生猿王身分，提婆達多也出生一個猿猴。當時提婆達多反對佛陀，攻擊佛陀。所以在今生提婆達多仍然反對佛陀，攻擊佛陀。從而我們可以知道《六度集經》的寓言故事有今生—前生兩個不同的結構。其實大部分的寓言重點是有關前生的一段，有關今生的一段只是引言一樣的功能。《六度集經》一共有九十一篇故事，其中有八十篇左右的寓言故事，在八十篇寓言中，也有三十篇左右的動物寓言故事。《六度集經》的動物寓言故事究竟跟中國古代先秦寓言故事有什麼差別？中國先秦寓言，一般很重視寓言的哲理性·教訓性等，例如《莊子》也有動物出現的不少寓言故事，可是莊子敘述的重點不是寓言本身而是寓言的哲理因素。相反，《六度集經》很重視寓言本身的故事情節，爲了佛教教理廣範的普及，作者們常常利用古代印度民間流傳的寓言故。自然他們的敘述重點不是寓言故事的哲理性而是寓言故事本身的趣味性。所以，《六度集經》的寓言故事，一方面更擴大中國古代寓言的內容(到三

國時代，中國古代寓言中的動物寓言較少)，另一方面塑造出許多動物形象。《六度集經》中的猿王·鹿王·象王·龍王等各種動物形象確實提供給后代志怪小說中的許多動物形象的素材。例如說，唐代傳奇中的《柳毅傳》·《補江總白猿傳》·《任氏傳》等的各種動物形象也許存在印度古代動物寓言中的動物形象因素。

주제어 : 前生譚, 動物寓言, 菩薩思想, 輪廻轉生, 六波羅蜜